



**10. 4. Fri 19:00** 종교음악 I  
 · 이베리 콰이어  
 · 전북영산작법보존회

**10. 5. Sat 17:00** 종교음악 II  
 · 첼리스트 양성원&TIMF양상블  
 · 아랫녘수룩재보존회

## 예술로 승화한 오래된 기원, 종교음악 신을 향한 인간의 갈망, 그 어딘가에서 마주한 예술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주제인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공연으로 종교음악 시리즈를 선보인다. 종교음악 본연의 역할에서 나아가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룬 동·서양의 종교음악을 선정해 이틀에 걸쳐 4개 단체의 음악을 소개한다.

서양을 대표하는 종교음악으로 조지아의 이베리 콰이어를 통해 코카서스 지역의 전통색이 담긴 조지아정교회 다성음악을 소개한다. 첼리스트 양성원과 TIMF양상블은 바흐와 메시앙 등, 클래식 음악 속 종교성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동양을 대표하는 종교음악으로 불교음악, 그중에서도 한국불교 음악을 소개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영산재와 수룩재를 통해 한국불교 음악의 다양성과 음악적 깊이를 조명한다.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연주가 된 이들의 음악  
 신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신을 향한 인간의 갈망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서 마주한 우리 시대의 종교음악들을 만나보자.

### 10. 4. 이베리 콰이어



이베리 콰이어는 2012년 음악감독 부바 무르굴리아(Buba Murgulia)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탄탄하고 빈틈없는 보컬 앙상블을 통해 이미 세계적인 주요 월드 뮤직 무대들을 휩쓸고 있다. 이들의 음악은 중세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부르던 다성음악(polyphony)의 초창기 형태를 연상시킨다. 교회음악뿐 아니라 수세기를 걸쳐 구전으로 전해온 민요, 설화, 자장가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아우른다.

### 10. 4.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영산재는 불교의 철학적이며 영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의식이다. 영산재를 올릴 때 수행되는 예술적인 의식을 축제 무대에서 만난다. 전라북도 영산재의 특징인 화려한 춤(승무, 범무)과 구성지고 깊은 범패(소리, 노래)를 만날 수 있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 1998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로 등록됐다.

### 10. 5. 첼리스트 양성원&TIMF양상블



첼리스트 양성원은 진지하고 견고한 테크닉으로 한국 첼로의 자존심으로 손꼽히는 연주자다. TIMF양상블은 2001년 창단 이래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레퍼토리 개발과 참신한 기획으로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주단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10. 5. 아랫녘수룩재보존회



물과 육지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위하여 베푸는 불교의 천도의식으로,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대중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낮재·밤재 합설이라는 의례상 특수성을 지닌다. 경상남도 일대에서 전승되던 범패의 맥을 이어, 의례와 음악적 측면에서 경상남도 지방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의례로 가치가 크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로 등록됐다.





## 카프카스 산맥에 메아리치는 아름다운 하모니, 이베리 콰이어

지성호 오페라 작곡가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지협에 위치한 국가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술한 문명이 밀물과 썰물처럼 진퇴를 거듭한 곳이다. 이 때문에 조지아는 다양한 문명의 연흔이 오랜 세월 축적된 지정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미 4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천년 넘는 세월동안 주변 이슬람 세력의 침탈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조지아 정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큰 나라이다.

모든 종교음악이, 하다못해 서구의 그레고리안 성가까지도 단선율(monophony)인데 비해 조지아만큼은 다성음악으로 발생하고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음악사적으로도 주목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1테너와 제2테너 그리고 바리톤이 주가 되는 남성 3성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1977년 미국이 태양계 무인탐사선 '보이저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을 때, 지구문화의 대표성을 띤 견본을 업선하여 골든 디스크에 실어 보냈는데 여기에 조지아의 민속 음악인 '차크룰로'(Chakrulo)가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된 사실에서도 조지아 다성음악의 문화사적 가치가 여실히 증명된다고 하겠다.

이베리아 하면 스페인을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고대에 조지아를 이베리아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베리 (IBERI)콰이어는 조지아의 노래를 전면에 표방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결성된 이 단체는 전 세계에 조지아 다성음악을 만들레 흠뻑 퍼뜨리고 있다. 이들의 레퍼토리는 교회 음악뿐 아니라 오랜 세월 전승된 민요, 노동요, 자장가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블랙 코트와 부츠에 갈을 찬 초하를 입은 남성네들의 하모니가 만년설을 이고선 코카서스 산맥의 골짜기에 메아리치는 광경은 가히 조지아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클래식 고전과 현대음악으로 만나는  
영성 가득 기원, 바람, 축복  
첼리스트 양성원과 TIMF양상블

지성호 오페라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작품번호 208  
Johann Sebastian Bach: Sheep may safely graze, BWV 208

바흐의 칸타타는 종교적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간간히 세속칸타타도 작곡하였다. 커피칸타타, 농민칸타타, 결혼칸타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 중 하나가 "나의 즐거움은 오직 사냥뿐!"이라는 칸타타이다. 제목이 길어 통상 사냥칸타타라 부른다. 이 칸타타는 작센의 영주 크리스티안의 3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위촉된 곡으로 모두 열다섯 곡이며 그 중에 9번째 곡이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이다. 제목처럼 평화로운 목가적 정경이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이 곡은 인기도 많아 여러 버전으로 편곡되어 연주된다. 이번 연주는 피아노 버전이다.



올리비에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 (1941)  
제5악장 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가  
Olivier Messiaen: Quartet for the End of Time  
V. Praise to the Eternity of Jesus

메시아의 유일한 실내악곡인 이 곡이 작곡되고 연주 된 상황이 유별나다. 2차 대전의 전쟁포로로 폴란드의 질레지아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메시앙이 요한 계시록에서 영감을 얻어 최후의 심판과 부활의 희망을 음악으로 형상화 한 곡이다. 포로수용소라는 열악한 연주환경 속에서, 더구나 오천 명이라는 포로 청중을 앞에 두고 메시앙을 포함한 포로 연주자들이 초연했다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이런 난해하고 의미심장한 곡이 연주가 가능했을까 궁금증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곡과 연주를 성사시킨 메시앙의 종교적 열정이 경이롭다 하겠다. 모두 8악장으로 된 이 곡 중 오늘 연주되는 곡은 제5악장 '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가'이며 첼로와 피아노로 연주된다.

아르보 파아트: 거울속의 거울 (1978)  
Arvo Pärt: Spiegel im Spiegel

단순한 3화음 안에서 고집스럽게 아르페지오로 분산하는 피아노는 때로 고음역에서 윈드차임 같은 맑고 투명한 음향을 울린다. 그레고리안 찬트가 낭송되는 고색창연한 성당의 종루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환기시킨다. 바로 툰툰나불리 양식이라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절제된 음형이 안개처럼 자욱한 화면에 유장한 첼로의 선율은 우아한 백조가 되어 유명한다. 거울속의 거울처럼 시간을 잃어버리고 아득한 곳의 상념을 불러오듯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된다.



### 블라디미르 마르티노프: 복이 있는 사람 (1998)

Vladimir Martynov: The Beatitudes

구 소련체제에서 예술은 사회주의 리얼리티의 우월성을 표방하는 선전선동의 도구일 뿐이었다.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전위음악을 개인적인 불이익 속에서도 꾸준히 추구했던 작곡가가 블라디미르 마르티노프이다. 그는 1970년대 후반에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을 작곡하면서 영성으로 고양된 러시아 정교회 찬트를 미니멀리즘 안에서 구현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후, 그는 목시록, 예레미야 예가, 마그니피카트, 스타바트마터, 레퀴엠 같은 종교곡 들을 주로 작곡하였다. '복이 있는 사람(The Beatitudes)'은 마태복음 제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이며 1998년 초연된 곡으로, 그의 작품 중에서 널리 연주되는 곡이다.

### 이신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2005/2014)

제1악장 I.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

Shinuh Lee: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I. Paul, a man of grace and grit

이신우는 성서에 기록된 죄와 구원을 비롯하여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작품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곡가이다. 1997년 관현악을 위한 〈시편 20편〉을 발표한 이후, 바이올린 협주곡 〈보이지 않는 손〉, 현을 위한 〈열린 문〉, 피아노를 위한 코랄판타지 1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편칸타타〉, 〈탄식의 노래〉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작업에 집중해 왔다. 그의 작품들은 상당수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예배를 위한 전례음악이 아닌 전문 연주자들의 장인적 기교와 예술성을 필요로 하는 콘서트용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바울의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2005년 Stony Brook Chamber Players의 위촉으로 1악장을 작곡, 초연한 후 2014년에 2-5악장을 추가하여 완성한 5악장으로 구성된 곡이다. 오늘은 제 1악장 'I.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 (Paul, a man of grace and grit)'만 연주한다.

※ 해당 곡 소개는 작곡가 이신우의 작곡노트에서 발췌함



## 숲과 바람, 산사의 소리

### 전북영산작법보존회&아랫녘수륙재보존회

홍태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전문위원

한국의 불교는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문화의 한 자산이 되었다. 사월초파일의 연등행사가 범국가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템플스테이는 현대인의 정신의 안식처가, 사십구재는 죽은 이를 저승으로 보내는 대표적인 의례가 되었다. 아울러 유네스코에서 세계무형유산으로 인정한 영산재, 사방에 있는 모든 죽은 영가들을 극락으로 보내는 수륙재, 살아 공덕을 쌓아 죽은 후에 부처님의 자비를 받고자 하는 생전예수재 등이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교의례는 부처님을 받들고 중생의 구제를 기원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구도의 길을 찾고 정신적 수양을 돕는 중요한 수련의 장이 되고 있다. 부족한 인간의 염원이 이뤄지기를 부처님의 자비심에 기원하면서, 깊은 내공을 담은 음악(법패)과 춤(작법)으로 그 열렬한 꿈을 표현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례의 법패와 작법은 인간이 부처님께 올리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면서, 온갖 번뇌와 욕망에 허덕이는 인간이 마음을 모아 올리는 공양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 불교음악과 춤은 경계(서울 중심의 전승), 충청제(충청도 중심 전승), 호남제(호남 중심 전승), 영제(영남 중심 전승)로 나뉜다. 이번 전주세계소리 축제를 통해 소개할 의례는 영산재와 수륙재로, 각각 호남과 영남 지역의 불교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의례라 할 수 있다.



## 화려한 춤과 깊이있는 범패의 송고함, 영산재

영산재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화경을 듣기 위해 영산에 모인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공양을 매개로 동참 대중이 불법과 선연을 맺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식이다. 영산재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범패와 작법을 합하여 영산작법이라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1999년 전주영산작법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하여 전승하고 있다.

전북영산작법은 호남의 소리와 춤이다. 호남의 넉넉한 들과 깊은 산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있다. 호남제 불교음악과 춤은 풍성하다 하면 애잔하고, 애잔하다 하면 넉넉하고, 넉넉하다 하면 처연하고, 처연하다 하면 또 웅장하다. 하지만 불교음악과 춤은 보는 이의 감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용되는 것이니, 그저 자신의 감정으로 소리걸을 따라가고, 마음 가는대로 춤 걸을 따라가면 될 일이다.

## 고도의 역사성과 예술성의 조화, 수록재

수록재는 현재 서울, 강원, 영남 등지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종교음악 시리즈에서는 2014년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넛 수록재를 선보인다.

아랫넛이라 하면 영남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로 경남의 창원, 고성, 통영 지역을 주로 칭한다. 이 지역의 불교음악과 춤은 영재라고 하는데 여러 불교예술 중 가장 힘 있고 강건하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의례의 현장에 주는 울림이 크다.

저 멀리 백두에서 뿜어온 태백산맥의 힘찬 줄기가 영남에서 여러 산봉우리로 걸을 맺어 영남 산천의 기운을 풍성하게 하는데, 그 기운이 범패에도 담기고 작법에도 어려, 소리와 춤이 그것이 전승되는 산과 들, 강 의 모습을 닮았음을 알게 한다. 힘찬 북소리로 문을 열고 여러 소리로 부처님께 올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말로 되어 있어 쓱쓱 귀에 박히는 회심곡으로 맺는다. 불교에서는 우리말로 되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음악을 화청이라고 하는데, 영남의 화청은 힘 있으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눈물짓게 한다.



불교에서는 소리가 가진 힘을 강조한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염불하는 것도 소리가 가진 힘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의식의 소리를 마음으로 그저 듣다보면 바쁜 생활에 놓쳤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 소리를 듣다보면 소리가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와 자신을 돌아보는 진기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일러 관음(觀音)이라 했다.

이번 소리축제는 '바람, 소리'를 주제로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사물을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역시 마음을 흔들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눈 감고 귀 기울여 불교음악의 의미에 마음을 열고, 마음과 눈으로 작법을 보면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관객이 늘기를 기원한다.

